

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

기상청의 기상정보에 의하면 금년 봄철(3월~5월)황사 발생일수가 지난 29년(1979~2007년)평균값인 5.1일 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. 따라서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며, 다음의 사양관리 수칙을 참조하시어 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.
- 2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킬 것.
- 3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초/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을 것.
- 4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, 건물 내·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.
- 5 겨울철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솔이나 브러쉬로 털어낸 후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보온관리에 철저를 기하고, 봄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 몸체를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할 것.
- 6 황사가 끝난 후부터 1~2주간 환축 발생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것.
- 7 축주들은 다음 사항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축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, 관할 읍/면, 시/군, 시/도 및 가축방역기관(시험소), 국립수의과학검역원, 농림수산물식품부 등으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대상가축 : 소, 돼지, 양, 염소, 사슴 등 우제류 동물(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)

- 고열, 식욕부진, 유량감소 및 심한 거품성 침을 많이 흘림
- 코/입/입술 및 혀 등에 물집(수포) 또는 궤양 형성
- 젖꼭지에 수포/가피/궤양이 형성
- 발굽(지간부)에 수포, 가피 및 궤양 등으로 발을 절뚝거리다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을 나타냄

